

日 차기 아베정권은 '개헌 정권'

“집단적 자위권 인정·자주헌법 명시” 표명

일본의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차기 정권에서 현행 헌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장관은 이를 위해 다음달 1일 발표하는 정권구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9조'에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전문에 자주헌법을 명시하는 등 전면 개정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까지는 제시하지 않되, 자민당이 지난해 작성한 개정초안을 토대로 논의를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

재선거에서 개헌 문제가 야스쿠니(靖國)신사 문제와 더불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장관은 일본사회 저변에 호르고 있는 우경화 기류에다 '포스트 고이즈미' 지도자로서 받고 있는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개헌 정권'을 표방, 적극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베 장관은 지난 1993년 중의원 첫 당선이후 자주헌법 제정을 정치신조로 내세워 왔다. 자민당이 작년 신헌법 초안을 작성했을 당시 기초위원회의 전문(前文)소위원회 위원장대리를 맡기도 했다.

또 최근 출간한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에서는 현행 헌법의 전문이 '패전국으로서 연례 합국에 대한 사과의 징표'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 자민당 결성의 최대 목적의 하나인 자주헌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외교·안보면에서 일본의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고이즈미 정권의 단순한 계승이 아닌 '아베 컬러'를 내보이기위해 정권 교체로 개헌을 앞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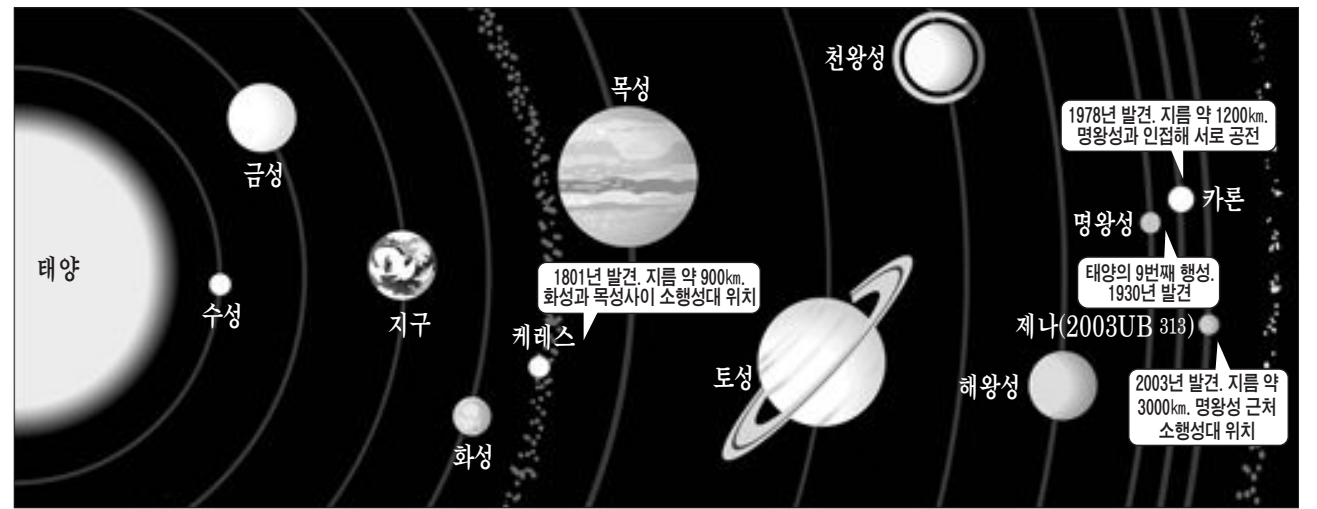
그러나 연합정권의 파트너인 공명당과 자민당 일부에서 9조 개정에 대해 신중론이 뿌리깊을 뿐 아니라 민주당과의 협조도 필요해 개헌을 실현시키는데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자민당은 9조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헌을 원하고 있는 반면 공명당에서는 환경권 등을 추가한 '가헌(加憲)'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베 진영에서는 오는 2010년 전후 개헌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국민적 논의를 확산시켜 나가는 수순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수·금·지·화·케·목·토·천·해·명·카·제

(케레스) (카론) (제나)



국제천문학연맹, 태양계 행성 3개 더 인정...명왕성 지위 유지

태양을 따라 도는 행성(行星)이 지금의 9개에서 12개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천문학연맹(IAU)은 16일 "2년여간 행성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 논의한 결과 논란을 빚던 명왕성의 행성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3개의 천체를 행성으로 새로 추가해 모두 12개를 태양계 행성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행성'과 '혜성 및 소행성'이 속하는 '태양계 소형 천체'의 정의 문제를 연구해온 IAU 산하 행성정의위원회(PDC)는 이날 프라하에서 세계 75개국 2천500여 천문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 IAU 총회에 이런 내용의 '행성 정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PDC가 내놓은 결의안은 수성과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8개 행성을 '고전 행성'으로 분류하고, 명왕성 등 3개 천체를 '명왕성형 행성'을 뜻하는 '플루톤(Pluton)'이라는 새 행성 범주에 넣고 소행성인 케레스(Ceres·로마 신화의 풍자의 여신)도 행성으로 인정할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 대상이 됐던 명왕성은 '플루톤'이라는 새 행성 범주를 통해 행성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그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명왕성의 최대 위성 카론(Charon·그리스 신화의 저승세계로 인도하는 뱀사공)과 2003년 발견된 행성 논란에 기록제가 된 '2003 UB313(그리스 정의)'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명왕성은 다른 태양계 행성과 달리 태양을 도는 공전궤도가 불규칙하고 크기

도 지구의 위성인 달보다 작다. 이 때문에 천문학계 일부에서는 명왕성이 행성이 아니라 소행성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IAU 이사회는 "지난달 산하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태양계 행성을 '태양을 따라 돌고 구형을 유지할 만한 크기와 중력을 가진 천체'로 새롭게 정의했다"며 "이에 따라 명왕성과 함께 3개의 천체를 태양계 행성으로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결의안은 이번 총회에서 과학자들의 토론을 거쳐 오는 24일 오후 열리는 2차 전체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태양계의 행성은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에서 '수, 금, 지, 화, 케, 목, 토, 천, 해, 명, 카, 제'나 '로' 바뀌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만 반일단체 '대만보안연맹'

다오위다오 섬 부근서 시위

대만의 한 반일단체가 17일 오전 선박을 이용,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군도)에 접근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반일단체인 '대만보안연맹(臺灣保釣聯盟)' 소속 운동가 8명이 탑승한 선박은 이날 대만 북부 항구를 출발해 한때 다오위다오 남서쪽 약 33km까지 접근했으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저지로 대만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 섬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50톤 규모의 이 선박이 시속 20km로 접근해오며 따라 영해를 진입하지 못하도록 경고고를 보내는 등 긴급감시활동을 벌였다. /연합뉴스



축구장에 '헤즈볼라 영웅'

이란 축구팬들이 16일 테헤란에서 열린 시리아와의 아시아컵 축구 경기를 관전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아랍권의 영웅으로 떠오른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의 초상화를 든 채 열띤 응원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英 항공기 테러음모는 9·11 5주년 맞춰 기획”

英 데일리 메일 신문

영국에서 적발된 항공기 테러 음모는 9·11 테러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파키스탄 고위 정보관리자들의 말을 인용, 테러범들이 9·11 5주년을 맞아 대서양 상공에서 항공기 여러 대를 동시다발적으로 폭파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미숙한 탓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보관리자들은 또 파키스탄에 억류 중인 테러 용의자 중 다수가 책을 통해 무기를 다

루는 법과 폭탄을 제조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한 고위 정보관리는 “그들이 테러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9·11 테러 5주년을 기념하는 테러를 원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라며 “그들이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면, 테러 계획에 실행에 옮겼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번 테러 음모를 위해 영국의 '세포'와 공모했다는 혐의로 핵심 용의자 라시드 라우프(25)를 포함해 최대 17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은 밝혔다.

두 딸의 아버지이자 변호장 영업사인 출

신인 라우프는 지난주 체포되기 전 파키스탄 인접 아프가니스탄의 알 카에다 지도자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주 테러 용의자 23명을 체포한 신문 중인 영국 런던경찰청은 기소 없이 테러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기한인 28일이 다 돼감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구금기한을 연장받았다.

관사는 용의자 중 21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5일을 더 신문할 수 있도록 경찰에 허용했다. 15일 체포된 24번째 용의자는 기소되지 않고 석방됐다. /연합뉴스

美 이민국·FBI, 한인매춘업소 대규모 적발

스트로에스네르 前파라과이 대통령 사망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연방수사국(FBI)은 15일(현지시간) 뉴욕,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미 동부지역의 한인 매춘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안모(44)씨 등 업주 및 관리인 31명과 김모(39)씨 등 중개인 6명, 손모(42)씨 등 자금관리자 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ICE와 FBI는 이와 함께 이들 업소에서 적발된 한인교 조선족 등 여성 70여명을 상대로 미국 입국 및 업소 근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ICE는 이날 발표에서 “합법적 영입소를 가정한 20개 매춘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면서 “이들에게는 윤락을 위한 인신매매, 불법 이민 알선 및 불법 자금 거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혐의가 인정되면 5년~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ICE는 지난해 5월 뉴욕 퀸스 지역에서 여러 매춘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인 업소 주인 부부가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며 뉴욕 시경 소속 경찰관 2명에게 12만 5천달러의 뇌물을 준 사실을 포착한 뒤 15개월에 걸친 장기간 사건 조사 끝에 단속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뉴욕, 워싱턴,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코네티컷 등 미 동부 남쪽의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북쪽의 로트 아일랜드까지 광범위한 규모로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리 마이아스 ICE 부국장은 “더 나은 삶이 보장될 것이라는 말에 속아 마사지 팔러, 헬스 스파, 침술 시술소 등에서 성 노예로 억류됐던 여성들이 이제 구출돼 풀려나고, 이들을 착취했던 범인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 놓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망한 스트로에스네르 전 대통령의 1962년 모습

한 때 중남미 지역에서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 이어 두 번째로 장기집권을 통해 독재자로 군림했던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93) 전 파라과이 과이 대통령이 16일 오전(현지 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스트로에스네르 전 대통령은 1954~1989년 사이 35년간 파라과이를 철권통치했으며, 1989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브라질로 정치 망명을 해 지금까지 살아왔다. /연합뉴스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겨울철 보온, 난방비 절감! 지금 시공하십시오!!

- 비가 새서 걱정하십니까?
- 여름에 더워서 짜증 납니까?
- 겨울에 춥습니까?
- 외관상 흉하십니까?
- 소음이 심하십니까?

한일 시공으로 건물 수명을 늘기 위한 영구 방수 단열 50% 절감 효과

■ 외장: 기와지붕, 스테이트지붕, 합석지붕, 스티브 옥상, 아파트 옥상, 공장지붕, 동합창고 등

■ 내장: 온실, 차사, 계사, 냉동창고, 저온창고, 체육관, 건물벽, 지붕을 실내 인테리어 가능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주택개발 | TEL (062) 262-0606 / 262-0450

경찰의 꿈을 이루는 곳!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랑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합격을 앞당기는 시스템 -매월 1일, 15일 개강

①6개월회원제 / 1년 회원제
오전이론+저녁이론강의+오수실전문예를 모두 수강가능

②2개월 종합반
오전이론+저녁이론 강의

- 17개월 무료 동영상이론(회원제)
- 정독서실, 교시원 할인 혜택
- 매주 토요일 기초영어특강 수강
- 매일 실전모의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개인성적표 제공)
- 전용자습실 사용가능
- 시뮬레이션 무료사용 가능
- 신뢰반·신설 맞춤 수강
- 가인성적표 제공

*차별화 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개론 김재규 교수	형법 조태업 교수	형사소송법 윤경근 교수
수사 오수영 교수	영어 오순아 교수	영어 정보열 교수

합격의 영광 뒤에는 김재규경찰학원이 있습니다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남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공무원 전문강좌

수시접수증

- 첫진도 시작반(이론반) 8월 1일 (광주유일 B반) **개강**
- 문제풀이 8월 1일(서울직 선관위 대비) **매월**
- 경찰직 이벤트 무료교재(138000), 10월 1일 시험대비 문제풀이 무료) **1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꼭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원용시험을 구분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해결하려면 우선 다양한 학교 형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실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생부담을 개인 여건이 상응하여 하고, 비로 우의 최고 강사진이 선공과목별로 담당해야 합니다. 좌내영 교육학의 교수진은 학부, 이들에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수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한 높은 합격률로 입증된 최고 강사진입니다. 그러므로, 합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꼭시, 교원임용시험은 교수진이 최고야 돼”

문제풀이반 개강 9월 2일 (현재 예약접수중)

- 교육학/과내영 선생
- 수학/임대성 교수
- 생물/김지옥 교수
- 체육내용학/김용호 교수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 국어/최병태 교수
- 과학교육론/정영민 교수
- 지구과학/박명순 교수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초등교육과정/위재권 선생
- 국어교육론/미운용 교수
- 물리/정영민 교수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미술/김성희 교수
- 영어/송옥 교수
- 화학/이영철 교수
- 일반사회/김형수 교수
- 음악/박성선 교수

전국 화강의 강사진만을 모았습니다.

수강문의 :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에듀뷰넷

교원임용 동영상 강의

http://www.eduview.net

생강한 한영교육을 위해서는 시·경·충·강·호는 중요해! 시·경·충·강·호는 중요해! 시·경·충·강·호는 중요해!

전국 화강의 유명강사진 총집결

교육학 유아교육	미술
과학 교육학	김성희
국어 영어	수학
최병태	송 옥
체육	공통과학
김용호	정영민
김형수	김형수

현재 심화리 강의중

문의 : (02)816-1646

상위권 대학면접 전문 - 김영

호남유일 의학의대전문대학원대비강좌

MEET/DEET 대비반 개강

- 일반, 학사, 사대면접
- 편입대비 영어 기초반
- 약대, 한의대면접
- 생물, 화학, 한문, 한의학

교육대면접대비 - 김윤신 교육학

김영대학면접학원 광주동부경찰서 222-8088 개강: 9월 4일 ☎ 227-8088